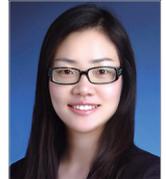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발병發病 (질병의 발생)

강 무 속

동물세종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지난호에는 전통수의학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한의학이나 전통수의학에서는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의 균형상태가 깨지게 되면 발생한다고 본다. 그 균형을 깨뜨리는 것으로 육음六淫, 여기口氣, 칠정七情, 음식, 노동, 성생활, 외상, 기생충, 담음, 어혈 등으로 몸의 균형을 작게 깨트리느냐 크게 깨트리느냐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질병의 상대되는 말은 건강이다. 장부와 경락의 생리기능이 정상이고, 기혈과 음양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무병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어떤 병리 요인의 작용에 의해 장부경락의 생리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기혈음양의 균형이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음양실조陰陽失調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수의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질병의 발생과 변화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크게 보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사기와 정기 그리고 질병의 발생

정기正氣는 장부와 경락, 기혈의 생리기능과 면역력, 회복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正 또는 정기正氣라고 한다. 사기邪氣는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邪 또는 사기邪氣, 병사病邪라고 한다.

1) 정기부족正氣不足 : 정기의 결핍은 질병 발생의 내재적인 근거가 된다.

전통수의학에서는 질병 발생 여부에 정기의 상태를 중요시

한다. 장부 생리기능이 정상이면 정기가 왕성하고 기혈이 충분해서 사기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므로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긴다(물론 교통사고나 해충에 의한 외상은 제외). 정기가 상대적으로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가 되면 사기가 그 부족함을 틈타고 침입하여 음양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장부경락의 기능에 이상을 야기하여 질병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정기를 기르는 것이 무병장수와 질병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정기를 기른다는 것에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보약이겠지만, 보약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채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약이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워 넘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전통수의학에서는 강하고 넘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시 한다. 기혈음양이 각각 부족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에, 기가 과하거나 혈이 과한 것도 균형이 깨진 병리상태로 보게 된다.

2) 사기邪氣 : 질병 발생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기는 정기의 결핍 상황이 되면 질병을 야기하는데, 어떤 조건 아래서는 정기의 결핍 유무와는 상관 없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독성물질의 섭취, 기생충, 외부 폭력, 고온상태 노출이나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 등에서는 정기가 왕성하여도 해당 요인에 의한 손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위에 열거한 경우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정기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질병 발생의 열쇠 – 정사간의 투쟁

정기와 사기의 충돌은 질병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발병 이후의 변화와 예후판단에도 중요하다.

1) 정기가 사기를 이기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기가 침입하게 되면 정기가 사기에 맞서게 된다. 만약 정기가 왕성하면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강하여 사기가 병리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고, 설령 병리변화를 일으키더라도 가벼운 단계에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자연계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등의 다양한 병의 원인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병의 원인을 접촉할 때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정기가 사기를 이겨낸 결과로 전통수의학에서는 해석한다.

2) 사기가 왕성하고 정기가 약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만약 사기에 비해 정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사기가 정기를 이기는 상황이 되고, 사기는 다양한 병리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3) 질병의 변화와 예후

질병 발생이후에도 정기의 강약, 사기 성질의 차이, 사기 침범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병증이 생겨난다.

정기 강약의 차이 : 정기가 강하면 사기와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임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실증實證이라고 표현하며, 대부분 질환의 급성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정기가 부족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면 사기가 침범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와 투쟁도 격렬하지 않아, 임상 증상도 격렬하지 않는 경우를 허증虛證이라고 하며, 주로 만성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증이면 사기가 실한 것이고, 허증이면 정기가 허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기와 사기와의 관계를 통해 실증과 허증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허증과 실증의 치료원칙이 서로 정반대기 때문이다. 허실 판단을 잘못하여 허한 것을 더욱 허하게 하고, 실한 것을 더욱 실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사기 성질의 차이 : 사기에도 음양을 적용하여 음사陰邪와 양사陽邪로 구분한다. 양적인 성격을 가진 양사陽邪는 양적인 부위에 발병하거나 정상적인 음陰을 손상시키는데, 주로

실열증實熱證의 형태로 잘 나타난다. 음적인 성격을 가진 음사陰邪인 경우는 양기를 손상시키는 한실증寒實證이나 한습증寒濕證의 형태로 잘 나타난다.

사기 강약의 차이 : 사기는 질병 발생의 중요한 조건이며 질병의 경중은 체질적인 요인 외에도 사기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기가 심하면 질병이 심하고, 사기가 덜 심하면 질병이 가벼울 수 있다.

발병 부위에 따른 차이 : 사기가 침입한 부위가 체표인 경우, 근골격맥인 경우와 장부인 경우에 따라 병증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와 근골격맥에 병변이 있으면 병이 얕다고 표현하고, 장부에 병변이 있으면 병이 깊다고 표현한다.

3. 내외 환경과 질병의 발생

외부 환경이란 생활하는 곳으로 기후변화, 지리적 특성, 주변 환경 위생 등등이다. 내부 환경이라 정기를 말하는데, 정기의 강약은 체질과 정신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1) 외부환경

외부환경 요인 중에서 기후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면, 감기와 일사병과 같은 질환과 계절성을 띠는 전염병이 기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현대에 와서 대부분 실내생활을 하는 소동물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기후 영향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축이나 면역력이 약한 자견의 경우는 정기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면 기존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도 기후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의 치료는 기존질환과 기후에 의한 질환과의 경중을 따져 치료에 있어서 선후를 정하게 된다.

추운지방에 살았던 품종이 더운 지역으로 옮겨와 살게 되는 경우, 내부에 열이 많이 쌓여 피부병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내부환경

내부환경으로는 체질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체질과 정기와와의 관계: 여기에서 언급하는 체질은 한의학의

사상체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유전적인 문제나 선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다발 품종은 체질이 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특히 신장과 간장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는 자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홍역이나 파보에 걸려 후유증으로 발육상태가 나쁜 경우도 체질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건 때부터 식욕저하를 보이는 경우는 소화기능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성견이 되어서도 면역력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나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신상태와 정기와와의 관계 : 정신상태는 정서적 자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신상태가 정상이면 기혈음양의 상태도 정상이며, 기혈음양의 상태가 균형을 잃고 장부경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상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정서 불안으로 정신 침울상태가 나타나면 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혈음양의 상태도 균형이 깨져, 장부기능에도 이상이 생기며 정기가 약해진다.

질병의 발생에는 이렇듯 다양한 요소가 관여를 하고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사기와 정기의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여 진료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기와 정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커다란 오판 없이 전통수의학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디스크 질환을 예로 들면, 퇴행성 변화로 인한 IVDD의 경우, 국부적인 염증과 부종, 울혈 상태를 개선하는 것보다, 퇴행성 변화를 정기의 부족으로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약물과 소염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물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처방하는 것이 임상효과가 더 좋다. 디스크 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독활기생탕의 처방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허증을 보하는 약물과 국부적인 염증과 부종, 울혈 상태를 제거해주는 약물로 구성되어 있어, 허실이 공존하는 병리상태를 개선하여 준다.

실제 임상에서는 정기와 사기의 상태가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고 사기와 정기의 상태가 모순되게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아서, 허실상태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겠지만, 증상 하나하나에 주의하여 허실과 정사 상태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